

### 3월 3일 수행일기 <F>

아침마다 자비외집 법당에서 분소의(儀掃衣)를 입고 계신 부처님께 한 줄기 향을 사르며 기도한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배고프지 않고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또 후회해 주시는 분들, 봉사자 분들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대내 모두 평안을 하게 해주십시오...



이금현  
경불련 부회장  
자비외집 운영

날마다 새로운 정진을 발원하며 '내 마음속 부처님' (自性佛)을 올리는 기도가 끝날 때쯤이면 아래층의 소란이 느껴진다. 그러나 잊지 않고 추신(鎭衝)처럼 나머지 마음을 자성보살님께 바쳐본다.

"중생을 어찌 여기서는 관세음보살님처럼, 아이를 사랑하는 어머니처럼 제가 그분들을 항상 사랑하고 이해하게 해주십시오."

급식 준비에 바쁜 봉사자들의 종중결과 자리싸움으로 시끄러운 속에서도 밥 냄새, 국

향상 함께 다니시던 다리 불편한 상(相)조차 없는 보살행으로 내 마음을 살찌울 수 있을까. 며칠전부터 까마귀 할머니가 보이지 않는다. 모두들 궁글해하고 뒷소리가 많다. 짜간 음식을 먹노라가 더럽다고 쏟아버린다느니, 잘 사시는데도 와서 집숫고 까간다느니... 항상 함께 다니시던 다리 불

### 아직 좋고 나쁜 인상따라 분별망상

#### 언제쯤 보살행으로 내 마음 살찌울지...

냄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다시 회상시킨다. 항상 사립 사는 향기로운이 가득 차 오르는 자비외집. 이 곳이 바로 나의 수행할 곳도 없는 수행의 현장이다.

오전 11시30분 시작되는 점심 급식임에도 아침 거른 어르신들의 뱃속에선 쪼르르 소리가 울려 나온다. 농사일 하는 장정의 고봉밥을 드려도 배식대 앞에 식판을 든 어르신들로 항상 소란스럽다. 식탁아래 비닐봉지에 싸 놓은 음식을 애써 감추며 적다고 떼시는 분들, 통을 내린 채 끝까지 물러서지 않으며 까마귀 소리 내시는 보성마 할머니 등... 모두가 우릴 슬프게 하는 분들이다.

편한 할머니에게서 눈물꽃이 피어났다. 어머니 부양도 못하던 변변치 못한 아들 내외가 할머니 방의 셋돈 600만원이 필요할 것 같다고 모셔갔다고 울며 따라간 할머니, 흑어 어디다 버렸는지도 모른다고...

남 걱정 할 처지가 아닌 분들이, 더욱 남의 아픔과 함께 하려는 그 마음이 내가 배워야 할 동체대비심(同體大悲心)임을 절감한다. 무주상(無住相) 보시의 마음으로 정성껏 어르신들을 공양해도 언제나 부족한 마음이 드는 것은 아직도 '상이 없는 보시'를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라.

6바라밀을 모두 실천하지는 못하지만 보시, 인욕, 정진바라밀을 날마다 행하면서 조금씩 반야바라밀을 체득해 나가는 것. 이것이 내게는 생활속의 불공공부가 되고 있다.

\*다음 회 필자는 차병기 경주 풍산 현의현장=바쁜 현의현 업무 가운데서도 틈틈이 금강경독송회 경주법당에서 수행하며, 외왕(外王)이신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구현하고 있는 거사다

원한(恨)을 버리고, 자비(慈)를 실천하는 것이 특장. 선어록을 철저히 체화(體化)한 후 오늘의 목소리로 되살려내는 설법은 고(高)를 통해 대신심을 내게 한 다음 대의심을 유발하고, 다시 대분심을 이끌어내 선(禪)에 이르도록 하는 체계적인 참선교육의 일환이다.

원래 부선의 태평신 안국사에 그 모체

원한(恨)을 버리고, 자비(慈)를 실천하는 것이 특장. 선어록을 철저히 체화(體化)한 후 오늘의 목소리로 되살려내는 설법은 고(高)를 통해 대신심을 내게 한 다음 대의심을 유발하고, 다시 대분심을 이끌어내 선(禪)에 이르도록 하는 체계적인 참선교육의 일환이다.

원래 부선의 태평신 안국사에 그 모체

원한(恨)을 버리고, 자비(慈)를 실천하는 것이 특장. 선어록을 철저히 체화(體化)한 후 오늘의 목소리로 되살려내는 설법은 고(高)를 통해 대신심을 내게 한 다음 대의심을 유발하고, 다시 대분심을 이끌어내 선(禪)에 이르도록 하는 체계적인 참선교육의 일환이다.

원래 부선의 태평신 안국사에 그 모체



◇평일에도 매일 200여 신도들이 정진하는 서울 안국선원 큰선방. 저마다 본래면목을 회복하기 위해 치열한 자신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다.

7일 오전 5시30분, 서울 종로구 가회동에 위치한 안국선원(www.ahnkookzen.org) 대부분의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져든 시간임에도 큰선방에는 화두 삼매에 빠진 70여 불자들이 하리를 곧추 세우고 있다.

결제 때는 매일 600여명이 정진한다는 크고 작은 선방에는, 새벽반(4-6시)에만 60-80여명이 참석하는 등 매일 150-200여 불자들이 자리를 빼곡히 메운다. 새벽 3시30분부터 저녁 10시까지 개방된 선원에는 자율적으로 가부좌를 틀고 앉은 신도들이 끊이지 않는다.

"그 선원에 다녀보니 자질로 번뇌와 집착이 놓이지더라"는 도반의 말에 선원을 찾게 됐다. 불수공(佛) 서울 흥재동) 보살은 "처음엔 나도 화두를 들 수 있을까 의심했지만, 선원장 수불 스님의 자상한 지도로 이제는 흔들림 없이 정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한다.

## 대의심·대분심으로 공안 참구

### 의심 가장 간절할 때 '이 뭇고' 등 화두제시 신도 1000여명...날마다 200여 불자 정진

다. 사랑 분별로 조사의 도리를 헤아리는 사구(死句) 참선은 엄밀한 의미에서 망상에 불과하다. 따라서 화두를 경전이나 조사어록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 이론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려는 '죽은 참선'과는 달리, 활구 참선은 선지식으로 부터 공안을 받아서 대의심, 대분심으로 참구(參究)해 나갈 뿐이다. 당장 처음 시작할 때부터 뒤를 돌아봐도, 왼쪽 오른쪽을 둘러봐도 꼭 막혀서 한 걸음도 나아갈래야 나아갈 수 없는 상태로, 한 걸음도 옮기지 아니하고 바로 참 나를 깨닫는 것이다.

신도들의 의문점을 꿰뚫어 그들에게 필요한 법문을 하며, 가장 의심이 간절해질 때 '이 뭇고' 등의 화두를 준다. 선원장 수불 스님의 법문은 <육조단경> <선요> <공산어록> <마조어록> 등 전통 조사선의 어록을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법하는

를 둔 안국선원은 서울에서 부산으로 오가는 신도의 수가 날이 증가하자, 1996년 4월 서울 서초구 서초 1동에 선원을 개원했다. 이후 99년에 창원 안국선원과 미국의 Zen Center를 설립하고, 2001년 3월 서울 안국선원을 신축 개원하면서 살아있는 선공진작에 나서고 있다.

"처음 수불 스님으로부터 지도를 받은 후에는 마치 용광로 속에서 쪼갠 알인 뒤에 나온 것 같은 느낌이었다. 오랜 번뇌가 벗겨지면서 통이 속 빠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권석천(64 서울 대치동) 신도회 부회장처럼 안국선원에서 활구 참선을 닦은 이들은 한결같이 이같은 탄성을 자아내곤 한다.

서울=(02)732-0772, 부산=(051)892-9877, 창원=(055)281-0772  
글=김재경 기자 gjkim@buddhania.com  
사진=임민수 기자 ymnsu@buddhania.com

### 수행 캘린더

■화두선 정진=광주 전남지역의 참선 모임인 광주선수도량(임승정진)은 매주 화·금요일 오후 8시 무등산 약사사(주지 범종)에서 화두선 수행에 동참할 재가 불자를 모집한다. (011)9620-0985

■정토선 염불정진=마야문화원 불교수행학교는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월·넷째 수요일 오후 7시 능원 법사(마야문화원 부원장)

의 지도로 정토선 염불정진을 갖는다. (02)722-1050

■김사철 박사 담마토크=연방국 선원은 10월 25-27일 오후 6시-9시 '불교 바로 알고 수행합시다'란 주제로 재미 과학자인 김사철 박사의 담마토크 시간을 갖는다. (02)334-1763

■참선 및 달마도 강좌=지난 13일 개원한 선문화예술원은 범주 스님의 지도로 매월 셋째 토요일 철야 참선 및 달마도 강좌를 연다. (054)535-0378

■위빠사나 명상=미안마선원 원장 산다마스님은 매달 마지막 일요일 오전 11시 서울 광림사에서 장애인과 일반인을 위한 위빠사나를 지도한다. (02)2202-5831

■참선과 태극권 수련=천마산 보광사는 '술과 태극권 그리고 참나를 찾아서'란 주제로 10월 25-27일 참선 및 태극권 수련회를 연다. 모집인원 25명. (031)594-1316

■원로스님 친견순례=조계종 중앙신도회는 10월 22일 청주 관음사 주지 이두스님을 친견하는 '원

로스님 친견순례'를 실시한다. 당일 오전 8시 30분 서울 양재역서 출발. (043)256-6254

■붓다 배알라 스님 초청법회=보현불교대학은 10월 29일 큰법당에서 붓다 배알라 스님을 초청법사로 '근본불교의 수행법'에 대해 강의한다. (042)624-6555

■성지순례 및 108배 정진=소리산참선캠프는 11월 9-10일(무박) 통도사 적멸보궁, 불국사 석굴암, 동화사 통일약사대불에서 성지순례 및 108배정진법회를 연다. 11월

9일 오후 7시, 삼성역 출발. (011)222-3329

■우만달라 스님 초청 수행=보리수선원은 11월 4-15일 열흘간 매일 오전 11시-오후 3시 우만달라 스님(미안마 마하시센터 수행법사)의 지도로 위빠사나 집중수행기간을 갖는다. (02)517-2841

■근본불교 수행=부산 태동사는 매주 화요일 오후 7시와 매주 토요일 5시 30분 정기 법회를 열고 팔정도에 따른 근본불교 수행법을 지도한다. (051)403-1207

##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좋은날 되소서

가을을 지배(支配)하는 달(月)에 담긴 무한창공의 희열. 우담바라의 선(禪)묵향(墨香)이 피어낸 화의의 바다. 향산과 녹수의 진여법계에 선 바라밀을 타고 흐르는 심공(心空).

그 엄화시중의 미소가 던지는 큰 깨달음의 화두. 과연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그 진객인 성각스님의 선사화와 함께 만남의 감동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 소년 소녀 가장돕기 성각스님 선사화 특별초대전

국제신문은 MBC부산문화방송과 공동으로「소년 소녀 가장돕기 2002 성각스님선서화(禪畫)특별초대전」을 오는 10월 25일부터 11월 3일까지(10일간) 국제신문 문화센터 4층 제1전시실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초대전에는 남해 망운암 성각스님의 특유의 화법과 운필묘사, 절제의 미, 자유로운 붓놀림의 분출하는 힘이 빛어낸 달마대전과 관음도, 산수화 등 총100여점이 전시됩니다.

새로운 미적 실험으로 포화(飽和)의 禪예술을 개척한 「소년 소녀 가장돕기 2002 성각스님 선서화(禪畫)특별초대전」에 시민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02.10.25~11.3(오전 10시~오후 8시)
- 장소: 국제신문 문화센터 제1전시실(4층)
- 문의: 국제신문 문화사업국 (051)500-5221~2  
동아대학교 총동문회 사무국 (051)243-4004

- 주최: 국제신문 MBC 부산문화방송
- 후원: 문화관광부,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 한국전통예술학회, 동국대학교 중동장회, 동아대학교 중동문회,
- 협찬: (주)동남기계, 성애침치, 불교TV염동궁양회

